



협회소식

NEWS

최상백 회장, 해양경찰청 격려 방문

-구제역 유입방지 위한 축산물 해상밀수 단속 강화 요청



본회 최상백 회장은 지난 7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한 해양경찰청(청장 : 김대원)을 방문하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밀수단속 등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들을 격려했다.

최상백 회장은 이날 김대원 해양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97년에는 대만에서 돼지구제역이 발생해 수출이 전면중단된 사실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축산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구제역 등 외래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등의 해상밀수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대원 해양경찰청장은 “항만과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밀수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제역 등 외래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최상백 회장의 해양경찰청 방문에는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한백용 본회 부회장, 정진섭 인천지부장이 동행했으며, 최 회장은 이날 국산 돼지고기 통조림 30상자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회, 각계에 국산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요청

-다이옥신 분석결과 수록한 '월간 소비자시대' 배포

본회는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잔류량 분석결과를 특별 수록한 '월간 소비자시대' 7월호를 구입, 전국 각 지부와 농림부, 축산기업조합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행한 '월간 소비자시대' 7월호에는 국산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벨기에산의 1/50, 미국산의 1/20밖에 안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최상백 회장, 정부에 자조금제도 입법 지원 요청

-축산생산자단체장과 함께 김성훈 농림부장관 면담

본회 최상백 회장은 지난 7월8일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장대석 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농림부에서 김성훈 장관을 면담하고, 금년 중에 무임승차자 없는 축산업 자조금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상백 회장은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박멸대책과는 별도로 전 양돈업계가 동참하여 박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자조금제도의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 양돈단지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7월9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양돈단지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상백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본회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실적과 협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돼지콜레라 박멸과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추진, 가축분뇨처리, 사료자가배합, 품질인증제 등 양돈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전국 양돈단지 대표 1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축산업 자조금제도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입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돈단지 대표들은 양돈단지 운영상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양돈단지 운영자금 지원 문

제 등의 해결을 위해 협회가 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양돈협회 도협의회가 양돈단지 대표들을 초청해서 양돈업계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회와 양돈단지간에 유대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국회·소비자보호원에 감사공문 발송

본회 최상백 회장은 지난 6월25일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김찬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국산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허승 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국산 돼지고기 등의 다이옥신 잔류량을 신속히 조사·발표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본회, 정육점 347곳에 국산돈육 판매증명서 발급

-국산 돼지고기 판매 촉진 위해

본회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6월18일 12개 시군 159개 식육판매업소에 국산 돼지고기 판매 증명서를 발급해준데 이어, 지난 7월15일 경기 안성, 전남 나주 등 7개 시군 188곳의 업소에 대해서도 국산 돼지고기 판매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로서 본회가 국산 돼지고기 판매업소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곳은 모두 347곳으로 늘어났다.

각 지역 본회 지부장의 확인·추천으로 발급되는 이 원산지 증명서는 국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에만 발급되며, 해당업소내에 게시된다. 그러나 해당업소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적발될 경우 즉시 회수된다.

본회, 검정사업 특별감사 실시



김동환, 노동환 감사는 본회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7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제1검정소와 제2검정소의 검정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본회 한백용 부회장, 한국중돈업경영인회장 피선



한백용 회장
(한국중돈업경영인회)

본회 한백용 부회장이 지난 7월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중돈업경영인회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중돈업경영인회는 임시총회에서 회원 확대를 위해 중돈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본회, IMF 이전 대비 직원수 20% 감축

본회는 IMF 이후 구조조정 일환으로 20%의 직원을 감축했다. 본회는 직원이 정년이 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35명이었던 직원중 20%인 7명을 감축해서 현재 직원

수는 28명이다. 부서별로는 총무부가 5명에서 4명으로 1명 줄었고, 지도부가 3명에서 2명으로, 홍보부가 6명에서 5명으로, 제1검정소가 9명(SEW사업장 3명 별도)에서 7명(2명)으로, 제2검정소가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여주지역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 92%

-여주공방단, 백신접종 불량 13농가 특별관리

본회 여주지부와 여주 양돈방역사업단(지부장, 단장 : 윤상익)은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백신접종 불량농가 13농가를 특별 관리하는 한편, 7월중 관내 모든 양돈농가가 100%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주 양돈방역사업단은 지난 6월4일~6월10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지역 공수의와 공동으로 여주군내 전 양돈농가 98호 돼지 900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돼지 900두 중 831두가 항체 양성 반응을 보여 항체 양성률이 92.3%에 달했다.

여주 양돈방역사업단은 백신접종 불량농가 13농가에 대해 백신 시술지도 및 농가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모든 양돈농가가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 80%를 넘을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사천지부, 개소식 및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 개최

본회 사천지부는 지난 6월28일 지부 사무실에서 최상백 회장과 정만규 사천시장, 도 축산계장, 양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양돈인들 스스로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100%를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이날 정중기 지부장은 지부 결성에 공이 큰 최호일씨, 남성기씨와 원활한 업무지원을 해준 조학래 사천시 축정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사천지부는 식후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홍보전단 및 요리책자를 배포하였다.

김포시 돼지콜레라 박멸단 구성

본회 김포지부(지부장 : 박재서)는 지난 7월20일 돼지콜레라 박멸단 발대식 및 돈육수출촉진대회를 개최했다. 김포시 통진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1부에서 돼지콜레라 교육 및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 김포시 돼지콜레라 박멸단 발대식 행사가 치러졌다.

김포시 돼지콜레라 박멸단장에는 박재서 김포지부장이 선임되었다.

본회 청양지부·김천지부, 양돈공방단 설치

지난 5월 본회 평택지부와 안동지부가 양돈공동 방역사업단(이하 양돈공방단)을 설치한데 이어, 청양지부와 김천지부도 양돈공방단을 설치했다.

농림부는 6월11일 '99공동방역사업단 사업대상

자로 본회 청양지부(지부장 : 이창영)와 김천지부(지부장 : 유진현)가 신청한 청양양돈공방단과 김천양돈공방단을 선정하고, 개소당 3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 각 지부에서 양돈공방단을 운영하는 지부수는 18개로 늘어났다.

평택지부, 박종필 지부장 선출



박종필
(평택지부장)

본회 평택지부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성균 지부장의 후임으로 박종필 씨를 선출하고, 부지부장에 이종암, 김종용 씨, 감사에 이희득, 정진

빈씨, 총무에 임선재 씨를 새로 선출했다.

한편, 박종필 지부장은 평택시 안중면 대반리에서 모든 400두 규모의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김광진 전주·완주지부장 전북양돈축협조합장 당선



김광진
(전북양돈축협조합장)

김광진 본회 전주·완주지부장이 지난 6월8일 전북양돈축협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김광진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축협이 어려운 시기에 조합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전북지역 양돈인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지역 양돈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다. **양돈**